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급락을 넘어 폭락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유가가 연일 폭락해 배럴당 80달러 초반에 진입했으니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10월 들어 나타난 폭락현상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여겨지고 있다.

에틸렌은 1400달러가 무너졌으나 아직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수익성 악화 수준을 넘어 존폐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해야 할 정도이다. 프로필렌은 1200달러에 턱걸이했고 부타디엔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한 끝에 1000달러대 중반으로 곤두박질쳤으며, BTX도 벤젠이 그런대로 양호할 뿐 톨루엔과 M-X는 900달러가 무너졌거나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중간유분도 마찬가지로 MEG는 800달러를 지키기 어렵게 됐고 SM은 정기보수가 홍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00달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P-X와 PTA는 폴리에스터 시장 침체가 예상외로 깊어지면서 폭락 수준을 넘어 시장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합성수지도 PE가 1500달러 수준을 간신히 지켰으나 LLDPE, HDPE에 이어 LDPE도 폭락기운이 농후하고 PP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이며 PS, ABS는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합성고무는 이미 떨어질만큼 떨어져 더 이상 하락할 기운도 소진한 상태이다.

석유화학 시장이 왜 죽을 지경으로 추락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셰일가스 개발 확

대에 유럽의 불황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국제유가가 연일 폭락해 배럴당 100달러가 무너졌음은 물론이고 80달러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50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60달러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우디가 산유량 쿼터를 지킨다면 70-80달러 수준에서 하락세가 멈출 수도 있겠지만 사우디가 국제 원유시장의 지배권을 내놓지 않겠다고 아우성치는 마당에 60달러를 사수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만약, 국제유가가 60달러 수준으로 폭락하면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나프타도 600달러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고 에틸렌, 프로필렌도 100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것은 상식이다. BTX가 800-900달러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MEG, SM, P-X, PTA 등은 고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불투명한 지경으로 추락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유가 폭락이 자리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석유화학의 위기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글로벌 판도를 뒤엎을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은 중국 경기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국내기업들은 최악의 국면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석유화학, 시장붕괴 우려된다!

대표이사 원장, 발행겸 편집인 | 박종우, 인쇄인 | (주)삼화인쇄 유성근, 발행처 | 화학경제연구원

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6호 Tel. 6124-6660 Fax. 6124-6669 www.chemlocus.co.kr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및 자료는 CMRI 소유이며, 무단복사·전제를 금합니다.